

정재원 4대륙선수권 金... 이승훈 銀 질주

정, 매스타트 8분15초770 정상
음주 징계 복귀전야후 연속 입상
마지막 바퀴서 큰 격차로 따돌려
女 박지우도 매스타트 동메달

스피드 스케이팅 정재원(21·인천부시청)과 이승훈(34·IHQ)이 4대륙선수권대회 남자 매스타트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재원은 4일(한국 시각)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대회 남자 매스타트에서 8분15초770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스프린트 포인트 60점으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이승훈은 8분15초840으로 스프린트 포인트 41점이 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마지막 바퀴에서 다른 선수들을 크게 따돌린 두 선수는 차례로 결승선으로 들어왔다.

지난 7월 음주 후 사고를 내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받았던 정재원은 복귀 후 첫 대회인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2차 대회에서 매스타트 은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 정상에 오르며 연속 입상에 성공했다.

한편 여자 매스타트에선 박지우(21·강원도청)가 9분15초440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따냈다. 또한 박재원(20·한국체대)이 9분16초570으로 4위에 올랐다.

이수현 기자 jwd95@sporbiz.co.kr



정재원(가운데)이 4일(한국 시각)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대회 남자 매스타트에서 우승한 뒤 금메달을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은 은메달을 차지한 이승훈. 박재원(가운데)이 4위에 올랐다.

서울 SK, KBL 첫 무패 입점

서울 SK 나이스가 프로농구 최초로 인턴십 쇼필름 무패에 정식 입점했다.

서울 SK는 "이달부터 쿠팡(www.coupang.com)으로 경기장이 아닌 집에서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해 편하게 SK 선수단 전원의 홈 및 일정 레플리카 유니폼을 구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입을 원하는 고객은 쿠팡 검색창에서 'SK 농구' 혹은 선수 이름으로 검색한 후 구매하면 된다. 구단은 앞으로 팬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 min1@sporbiz.co.kr

오늘의 경기

- 프로농구** D8-현대모비스(19시·원주종합체육관)
- 여자농구** BNK-KB(19시·부산사직체육관)
- 바둑** 해성 여자기성전 4강(19시)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강릉·평창서 개최식 이원호로 개최-중계

개최식 이원호로 개최-중계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식이 강릉과 평창에서 열린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전문 감독단의 현장실사 및 객관적인 검토의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의, 문체부-강원도-강릉시-평창군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개최지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과 평창의 평창동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개최식은 강릉과 평창에서 이원호로 개최-중계한다. 개최식 하이라이트인 설화 점화 및 다양한 문화행사는 강릉과 평창에서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선수단과 올림픽위원회, IOC 관계자는 이통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 강릉 개최식장에 참석한다.

조직위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내년 조직위 확대 개편 후(90명 → 200명) 평창 지역 상주, 대회 컨트롤타워인 종합운영센터(MOC: Main Operation Center)의 평창지역설치, 평창올림픽 축제한마당 등 문화행사 지원, 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 사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직위 측은 "개최식 공동개최로 'Grow Together, Shine Forever(함께 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대회 슬로건이 전하는 메시지와 같이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평창과 강릉을 포함한 모든 개최지가 청소년올림픽으로 함께 빛나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강릉시-평창군 등 관계기관들과 지역 주민들께서도 대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이번 대회가 국격에 맞는 성공적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수현 기자 jwd95@sporbiz.co.kr

키움, 도박 논란 푸이그 재계약 포기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외국인 타자 아시아권 푸이그(32)와 작별을 선택했다. 푸이그가 시즌 중반 이후 좋은 활약을 보였지만, 특히 포스트시즌에서 팀을 잘 이끌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재계약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결단을 내렸다.



키움 구단은 "올 시즌 푸이그가 보여준 활약이 인상적이었던 만큼 내년 시즌도 함께하길 바랐지만, 푸이그의 현재 여려 상황을 고려할 때 계속 기다리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논의 끝에 내년 시즌 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고 덧붙였다.

미국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에서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5·도론토 블루제이스)와 한술을 먹어 국내 팬들에게도 친숙했던 푸이그는 올해 한국프로야구(KBO) 무대에 입성했다. 호쾌한 장타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한 주루와 수비가 화자되며 큰 기대를 모았다.

시즌 초반에는 고전했다. 한국 야구 적응에 애를 먹으며 피홈런에 시달리기도 했다. 전반 37경기에서 타율 0.245 9홈런 7타점에 그쳤다. 위기 속에서 조금씩 살아난 푸이그는 팀 기여도를 높이며 부활했다. 후반기 56경기에서 타율 0.317 12홈런 36타점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정규 시즌 성적은 126경기 타율 0.277 21홈런 73타점 65득점 6도루였다.

가을야구에서 존재감을 더욱 빛내며 피홈런을 책임졌다. 한국 시리즈에서도 고비 때마다 장타를 터뜨리고 홈런을 펼친 푸이그의 선전을 견인했다. 키움에 아쉽게 우승을 놓쳤지만, 한국 시리즈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 내년 시즌 재계약이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시즌 종료 후 불법 스포츠 도박과 위증 논란이 불거져 박문을 잡았다. 푸이그가 지난 2019년 불법 스포츠 도박, 위증 혐의에 연루돼 미국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초 푸이그는 위증 혐의에 따른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1월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했다며 합의를 철회하고 무죄를 주장했다고 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최대 5년 동안 징역형에 처해질지도 모른다.

한국 야구에 적용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불만 요소가 뚜렷해 재계약은 다시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키움 관계자는 "푸이그를 대체할 새로운 외국인 타자 영입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선언했다.

김정민 기자 min1@sporbiz.co.kr

본지이정인 기자, 한국체육기자연맹 '올해의 영리포터'

이길용체육기자상 KBS 김봉진

본지 스포츠산업부 이정인 기자가 한국체육기자연맹(회장 양중구) 선정 올해의 영리포터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제33회 이길용 체육기자상은 김봉진 KBS 기자가 받는다.

한국체육기자연맹(회장 양중구)은 지난달 30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의 영리포터상과 2022년 이길용 체육기자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정인 기자가 5년 차 이하 체육기자연맹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의 영리포터상' 주인공이 됐다. 2018년 한국스포츠경제에 입사한 이정인 기자는 스포츠산업부에 속해 여러 종목의 현장 소식을 발 빠르게 알리고 심층 취재로 차별화한 기사를 보내왔다.

올해 3월 '한국 럭비가 간다' 시리



이정인 기자

지 기획 기사로 3분기 체육기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1995년 KBS에 입사하며 기자 생활을 시작한 김봉진 KBS 기자는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해 국내외 취재 현장을 누비며 스포츠 소식을 다양하게 전했다. 특히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펜싱, 양궁, 수영 등 아마추어 종목을 담당해 한국 스포츠의 높아진 위상을 꾸준히 보도했다. KBS 스포츠 취재부 팀장, 스포츠 사업부

팀장, 스포츠 제작부 팀장, 스포츠 기획부 부장을 역임했다. 2010년 한국 야구위원회(KBO) 야구기자회 회장,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체육기자연맹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2021년 대한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다.

한국체육기자연맹 양중구 회장은 "이길용 체육기자상 수상자 김봉진 기자와 올해의 영리포터상을 받게 된 이정인 기자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열심한 현장에서 취재하고 양질의 기획 기사를 보도하는 체육 기자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33회 이길용 체육기자상과 올해의 영리포터상 시상식은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2022년 체육기사의 발 행사 중에 진행됐다.

심재희 기자 kkananm@sporbiz.co.kr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2-98호

보상 계획 공고 (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5호선 원주 신림-판부2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 명** : 국도5호선 원주 신림-판부2 도로건설공사
- 사업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일원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5.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2. 12. 5. ~ 2022. 12. 19.

6. **열람 및 손실보상협의 장소**
감리단 사무실 (강원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906-3 ☎070-4123-372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강원 원주시 인촌로 50 ☎033-769-5763)

7. **보상시기 및 절차** : 2023년 3월 중 보상협의 예정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추후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8.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거나, 어느 한 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의거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국(국토교통부)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9. **본 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기타 보상업무 관련 문의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 및 물건 내역은 우리 청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